

사사기 4.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실제" [3장 7절-3장 11절]

1. 들어가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죽자 금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시며 8년 동안이나 그의 통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사사 옷니엘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사사 옷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반복되는 10가지 패턴 (공식)

	공식	표현	옷니엘	서론
1.	악행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3:7	2:11
2.	우상숭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3:7	2:12
3.	진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3:8	2:14,20
4.	핍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3:8	2:14
5.	부르짖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3:9	
6.	세움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3:9	2:16,18
7.	사사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3:10	2:16,18
8.	승리	옷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3:10	
9.	평안	그 땅이 태평한 지 사십 년에	3:11	
10.	죽음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 죽었더라	3:11	

3. 이스라엘의 악행과 하나님의 진노

1)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악행은 하나님을 \_\_\_\_\_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때부터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수없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_\_\_\_\_의 길로 빠집니다.
- 히브리서 12: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_\_\_\_\_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 성도는 아는 지식으로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자 하는 각오와 행함이 필요합니다.

2)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_\_\_\_\_하십니다.

참고 : 8 절의 진노라는 히브리어의 문자적 표현은, "그의 코가 빨갈게 달아오르다."입니다.

곧 마음이 활! 활~ 타오르는 용광로가 되어 그 뜨거운 기운이 콧김으로 뿜어 나온다는 말입니다.

-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 아닌 \_\_\_\_\_입니다. 심판은 \_\_\_\_\_이지만, 징계는 \_\_\_\_\_의 회초리입니다.

3) '손'에서 '손'으로의 징계

- 8 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_\_\_\_\_' 에서 "이방 왕 구산 \_\_\_\_\_의 손"으로 그들을 넘겨준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 존 칼빈 :

"심판은 재판관의 행동이요, 징계를 위한 심판은 아버지의 행동이다. 재판관이 악행을 범하는 자를 처벌할 때에는 그 범죄의 경중을 따져서 범죄 그 자체에 형벌을 적용시킨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잘못을 교정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보복을 한다든가 그를 해치려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르치고 그리하여 더욱 조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벌을 주는 것이다"

-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거기에 드러나지만, 성도를 향한 징계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욘 5:17, 잠 3:11-12, 히 12:5-6, etc.)
-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을 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잠언 13:24,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심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9:18,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히 12:5-11,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거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 다윗의 예

시편 94:12-13,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채찍을 맞을 때에, 놀림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인과 간음을 극히 노여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신실한 종에게 그러한 큰 노여움을 친히 선포하심으로써, 다윗이 다시는 그런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가르침을 받게 하신 것이었지, 지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내린 형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의 손이 아닌 악인의 손으로..

5)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누구일까?

■ 메소보다미아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소개된 '밧단 아람' 혹은 '하란'으로 불리었던 지역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메소보다미아란 말의 뜻은 바로 이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 B.C. 3000 년경 수메르인들이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고유 문자를 만들며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전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지역 남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주했고, 오늘 본문에 구산 리사다임 왕은 이스라엘을 정복하며 8년 동안 통치했고, 훗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앗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으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유다를 멸망시킨 후, 유다 백성들을 이곳으로 잡아왔습니다.

■ 구산 리사다임 왕

여기 ‘리사다임’ 이란 뜻은 ‘이중으로 악한 (double-wickedness)’라는 말로, 왕의 이름의 뜻은 “이중으로 악한 구산 (Cushan of Double Wickedness) 라는 뜻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리사다임”은 백성들이 붙은 왕의 별명이라 생각합니다. 곧 그가 얼마나 사악한 왕이였는가를 말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간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과 이중으로 악한 손의 차이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 그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 삶은 결국 우상숭배의 삶으로 발전하고 그 결과는 이중으로 악한 박해자로 인한 고통임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6)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고,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간절한 \_\_\_\_\_ 기도 뿐입니다

- ‘큰 소리’로 부르짖음 - 힘을 다해 부른다는 뜻
-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4. 사사 웃니엘

1) 하나님은 언제나 \_\_\_\_\_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_\_\_\_\_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ex: 모세, 다윗, 모든 사사들, 제자들, 스테반 집사 etc...)

10 절 a,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2) 역사적인 관점에서 웃니엘의 등장 의미: 모세 - 여호수아 - 첫 사사 웃니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였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를 이어서는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고, 각 지파의 장로들이 자기 지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연합은 오직 제사장들을 통한 하나됨, 곧 종교적인 통합뿐이었는데,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며, 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의미해져 가고, 신앙과 종교는 타락함으로 통제 불가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웃니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3) 저자는 웃니엘을 갈렙과 연관시키며 큰 의미를 부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 웃니엘과 갈렙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견해: 갈렙의 아우 아니면 갈렙의 조카  
많은 성경학자들은 웃니엘은 갈렙의 동생이 아니라 갈렙의 조카라고 동의.  
제일 큰 이유: 갈렙을 설명할 때 - ‘여분네의 아들 갈렙’ But 웃니엘은 ‘그나스의 아들’
- 사사기 1:13-17의 내용은 여호수아 15:13-19과 정확히 같은 내용입니다,  
저자가 이 사실을 반복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첫 사사 웃니엘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를 강조하여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웃니엘은 젊었을 때에도 갈렙과 함께 했던 \_\_\_\_\_의 용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갈렙의 제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음으로 두려움없이 기랏세벨을 정복하였습니다.
-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고, 그를 주의 일꾼으로 택하셔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 생각해 보라: 웃니엘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4) “웃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이란 뜻입니다.

5) 손에서 손으로의 구원

- 10 절,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웃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 이스라엘이 타락하며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이중으로 악한 자의 손”에 넘기셨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그들을 “이중으로 악한 자의 손”에서 웃니엘의 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고, 옮겨주신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6) 이스라엘은 사사 웃니엘이 살아있는 \_\_\_\_년간 평안함을 유지하였습니다.

5. 생각하기 1.

사사 웃니엘의 기록은 단지 9 절 후반부에서 10 절 한절의 짧은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렇게 끔찍하고 악했던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고 40년간 이스라엘에 평안을 가져왔다면 분명히 수많은 풍성한 이야기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이렇게 짧게 성경이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6. 오늘 내용을 통한 개인적인 생각과 결단이 있다면 무엇인가요..?